

중국 농촌합작체계의 형성과 전개(1919-1958)
-서구 공상적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사상의 영향을 중심으로-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hina's Rural
Cooperative System(1919-1958): With Influences of
Western's Utopian Socialism and Cooperative Ideas

박경철*
Kyong Cheol Park

Abstract

This study is mainl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both Western's utopian socialism and cooperatives ideas on the process of China's rural cooperation from 1919(the occurrence of 5.4 movement) to 1958(the completion of People's commune). To accomplish this, first, we will discuss that how these two ide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Western capitalism in the before/early 20th century were introduced into China and how these ideas effected on the process of the China's Communist Revolution. Then, we will review the process of China's rural cooperation during the 1950s' new socialist nation-building period since the foundation of New China(1949), the sharp debates about rural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its realization, and the reasons of radically promoting rural cooperation in the late 1950s. Finally, through these debates and experiences regarding rural cooperation in rural China during 1919-1958, any implications in solving rural cooperation problems of contemporary China facing difficulties will be provided.

* 北京大學 社會學系 博士課程. e-mail: khc0506@naver.com

주요어(key words): 협동조합사상(Cooperative Ideas), 공상적 사회주의(Utopian Socialism), 농업합작사(Agricultural Cooperatives), 人民公社(People's Commune), 毛澤東(Mao Zedong)

1. 들어가며

1.1. 문제의 제기

전통적 봉건국가이자 농업국가인 중국은 19세기에 들어 서구열강의 침입으로 인해 강제로 개방이 되고 그 후 서구의 근대적 자본과 기술 그리고 반식민적 지배체제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격변을 겪게 됐다. 특히, 상하이, 홍콩 등 조기에 개방된 대도시는 물론이고 이후 농촌지역에서도 반식민지 지배 형식에 의한 서구열강의 자본약탈이 점점 심해지고 이로 인해 도시의 노동자와 농촌의 농민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갔다. 그러자 중국의 애국주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서구열강의 침탈에 대항하고 구시대의 봉건국가인 중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이르렀다. 즉, 당시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서구열강의 침략으로 자본수탈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전통적인 봉건체제로 인해 인민대중이 속박되는 중국사회의 이중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도자와 지식인들은 서구로부터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중국의 정치계와 지식계에서는 다양한 서구의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였고 어떤 사상과 이념이 중국사회를 개조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있어왔다. 이 당시 중국사회에서 유행한 계몽과 구국사상을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크게 급진주의와 자유주

의사상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급진주의사상으로는 무정부주의와 공산 사회주의사상이 있으며 이 사상은 마오쩌둥같이 젊은 청년들이 사회혁명을 통해 중국사회를 이상(理想), 평등, 혁명사회로 바꾸려는 사상이었다. 반면, 자유주의사상은 전통을 부정하고 전체적으로 서구의 과학사상을 도입해 사회 전반을 개혁하려는 그룹으로 후스(胡適)와 같이 민주, 자유, 현대화된 국가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 지식 계층과 정치지도자들 가운데에서 kang유웨이(康有爲)는 자본주의체제의 독점적 모순을 교육과 이성 그리고 이상적 공동체 건설로 극복하고자 했던 공상적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여 대동사상(大同思想)으로 발전시켰고, 웨시엔저우(薛仙舟)는 급진주의와 자유주의사상 중간에서 서구의 사회개조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온화적인 사상인 협동조합사상(합작사상)을 받아들여 중국에서의 합작운동을 전개했다.¹⁾

먼저, 한국과 일본에서는 흔히 협동조합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합작주의는 당시 평민합작, 계급화해, 평화추구의 방식으로 새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상이었고 인민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20세기 초 중국의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농촌경제를 재건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陳意新 2001: 89). 예를 들면, 이 당시 합작주의는 민국(民國)시기에 국민당, 공산당, 화양의진회(華洋義賑會)의 양교사(洋教士), 안양추(晏陽初)의 서구식의 평민교육운동, 량수밍(梁漱溟)의 중국 전통문화식의 향촌건설운동 등에 영향을 주었고 그들 또한 주로 농촌에서 농민들의 빈곤퇴치와 경제적 자

1) 당시 합작주의운동에 참여한 마오페이(1920)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의 개조는 크게 세 가지의 경로, 즉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합작주의를 따른다고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국가권력을 통해 그 목표를 실행하기 때문에 '국가만능'을 강조하고, 무정부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통해 사회를 개조하기 때문에 '개인만능'을 강조한다고 했다. 따라서 전자는 개인을 무시하고 후자는 국가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를 절충할 수 있는 합작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립 활동에 합작사 방식을 적극 활용했다. 또한, 공화국시기, 즉 신중국 성립 이후 공산당은 합작주의를 농민들의 생활개선에서 더 나아가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를 적극 활용했다. 공상적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대동사상은 국가와 가족을 없애고 세계정부와 생활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개혁사상으로 당시 20세기 초반 많은 개혁파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20세기 초 서구의 다양한 사상들이 중국에 유입되어 실험되고 실천되었지만 중국의 이런 합작운동에 관한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에서도 부족한 실태이다. 특히 Shue(1980)와 菊池一隆(1992) 등 일부 학자들이 중국의 합작운동에 많은 연구를 기울이기는 했지만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공산당의 농민혁명시기와 신중국 성립 이후 농촌합작화운동이 대부분 소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길 뿐 공산당 지도자들이 소련의 농촌합작화 이전에 이미 서구의 공상적 사회주의와 합작주의 관련 문헌을 접촉했었고 이를 중국의 사회개조에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특히 신중국 성립 전후 공산당 지도부는 공상적 사회주의와 합작주의를 공산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활용한 사실에 대해 그동안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왔다. 또한, 중국 전통의 공동체사상에 서구 공상적 사회주의사상을 접목한 캉유웨이의 대동사상과 서구의 협동조합사상이 공산혁명, 신중국 성립, 인민공사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농촌의 삼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신농촌건설사업과 농민전업합작사사업이 과거의 역사적 사상 및 경험과 어떤 맥락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분석틀과 의의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새로운 사상과 이념이 활발히 수용된 1919년 5.4운동시기에서 인민공사체제가 완성된 1958년까지 서구의 새로운 이념과 사상 가운데 특히 서구 공상적 사회주의사상과 협동조합사상이 중국 농촌합작화체계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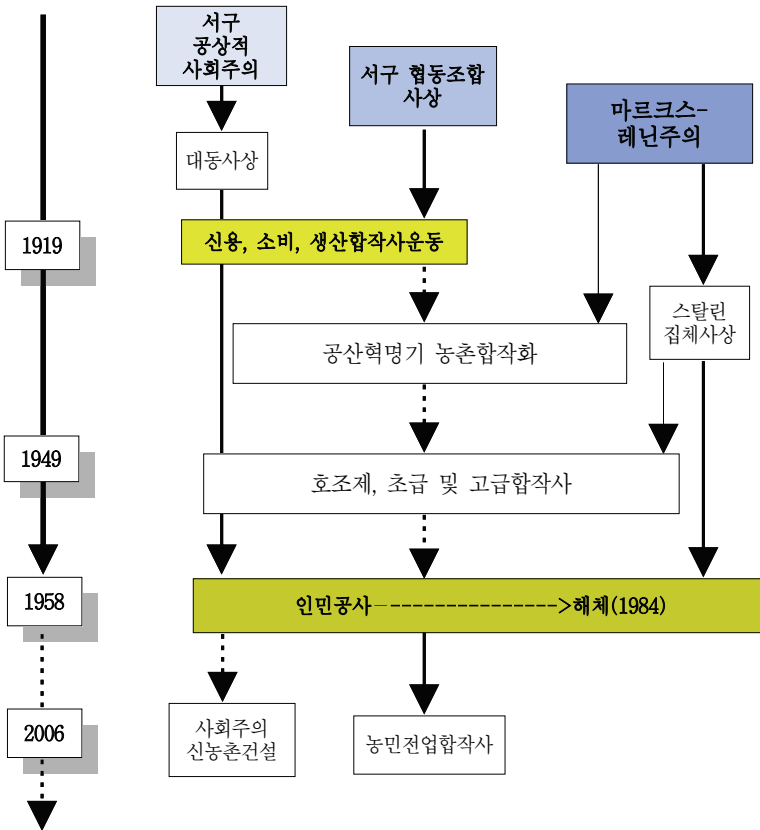
첫째, 서구의 모순된 자본주의체제의 대안으로 시작된 공상적 사회주의사상과 협동조합사상이 20세기 초에 누구에 의해 어떻게 중국으로 유입 및 수용되었고 당시 이들 사상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공상적 사회주의사상에 영향을 받은 중국근대 개혁사상가인 Kang 유웨이(康有爲)의 대동사상과 서구의 협동조합사상을 중국에 들어와 전파한 쉰시엔저우(薛仙舟) 등의 합작사상과 그 실천 활동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1920년 말 일제의 침략으로 온건적 합작주의운동이 포기되고 공상적 사회주의사상에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레닌의 합작사상이 공산혁명시기에 마오쩌둥과 류샤오치(劉少奇) 등 중국공산당 지도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1950년대 중국의 사회주의국가 건설과정에서 농업국가인 중국농촌에서 합작화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 실현과정에서 어떠한 첨예한 논쟁이 있었으며 결국 인민공사와 같이 급진적이고 공상적인 농촌합작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농촌합작화 논쟁과 추진 경험이 오늘날 어려움에 당면한 중국이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회주의신농촌건설사업 및 농민전업합작사사업과 어떤 역사적, 사상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중국의 농촌조직의 재합작

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함의를 주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개괄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분석의 틀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농촌합작화 과정은 스탈린식 집체경제사상의 영향 때문이라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농촌합작체계의 역사적 과정을 거슬러 살

펴보면 많은 부분 중국의 전통사상과 서구의 새로운 사상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과 관계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둘째, 1920년대 중국에 유입된 합작주의(협동조합주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전파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농촌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도자와 사상가들의 실천사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계급 간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주창한 조화사회(和諧社會)와 사회주의신농촌건설은 사상적으로는 근대화시기 캉유웨이의 대동사회와 1920년대 양수밍(梁漱溟)과 안양추(晏陽初) 등의 향촌건설운동과 사상적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사적, 논리적 분석은 향후 중국 농촌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서구 합작운동의 형성과 중국 유입

2.1. 합작과 합작주의의 개념

중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합작(合作)’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영어로 번역하면 ‘Cooperation’ 혹은 ‘Working together’의 뜻이 되며 역으로 이들 영어단어의 중국어 번역어는 ‘합작’이 된다. 이전에는 ‘협작(協作)’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와서는 거의 ‘합작’으로 통일되었다. 여기서 ‘합작’의 의미는 크게 광의와 협의로 나뉠 수 있다. 우선 광의의 합작은 인류가 공동이익의 창출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모든 집

단적 행위를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 말하는 광의의 합작은 서구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는 다양한 공동체주의의 형태를 일컫는다. 반면, 협의의 '합작'은 주로 경제 방면에서 일체의 경제조직 혹은 제도이며 여기에는 공업, 농업, 상업, 금융업 등 산업부문의 합작을 포함한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 예를 들어, 임금노동자, 소상공인, 소수공업자, 농민 등의 집단이 자신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원칙에 의거해 건립한 일종의 경제조직과 경제제도를 말한다. 이는 유럽에서 시작한 협동조합(Cooperative)을 의미하며 중국에서는 주로 '합작사(合作社)'²⁾로 번역되어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중국에서 합작사는 단순히 협동조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에서의 '합작'의 의미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기 모습을 달리하며 발전되어 왔다.³⁾ 즉, 서구의 협동조합사상이 중국에 전파되면서 중국에서도 신중국 성립 전후까지 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났지만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합작사'는 단순히 서구에서 말하는 빈민구제와 상호부조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크게는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본령을 의미하기도 한다.⁴⁾

-
- 2) 합작사상이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20세기 초 중국 학술파자에 합작사는 '協同組合', '協社', '協作社'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대부분의 용어는 영어 'cooperative'의 일본 번역명인 것으로 고증됐다(菊池一隆, 1992). 그 후 1919년 미국에서 돌아온 쉰시엔 저우(薛仙舟)가 영어의 'cooperative'를 '합작사'로 번역되면서 이때부터 '합작사'가 표준이 되었는데 이는 '합작사'가 의미상으로도 중국 민간전통의 금융조합인 '습회'와도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伍玉璋, 1929)고 했다.
- 3) 합작의 형태가 정치, 행정적인 성격이 강할 경우에는 '집체(集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중국에서는 마을(村莊) 단위의 재산소유와 사업체가 많은데 이를 집체소유(集體所有)와 집체경제(集體經濟)라고 부른다. 신중국 성립 이후 정치와 사회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합작과 집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합작과 집체가 일부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 4) 따라서 '합작사'를 단순히 '협동조합'으로 번역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서구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협동조합을, 중국의 경우에는 합작사를 주로 사용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합작’과 ‘합작주의’의 의미는 광의의 차원에서 공동체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혹은 코뮌주의⁵⁾ 등의 의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협의의 차원에서 협동조합주의(또는 합작사주의) 등의 의미도 동시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2.2. 서구 공상적 사회주의와 합작주의의 형성과 실천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자본주의가 서구에서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도 동시에 분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비인간적인 착취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노동자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협력방식을 모색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여러 사상가와 실천가가 있어왔다. 그 당시 자본주의사회에 대항해 새롭게 인간적인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과 실천이 있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상과 인물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王貴宸, 2006: 83-88).

첫째, 19세기 초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이상적 공동체를 구상하고 실험한 가장 대표적인 사상인 공상적 사회주의사상이다. 여기에는 프랑스의 헨리 생시몽(Henri Saint-Simon)과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 그리고 영국의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아직 발달하지 않고,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간 계급투쟁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통렬히 비난하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정의와 이성을 토대

5) 노동자와 빈민의 주택문제를 그들의 삶과 생활의 문제로서 이해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던 사상가들이 코뮌주의자들이었다(이진경, 2007: 206). 뒤에 소개되는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푸리에와 오웬이 엄격하게 말하자면 코뮌주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로 한 이상사회 공동체를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했다. 일찍이 토마스 모어(Thomas More)는 자본의 원시축적을 폭로하며 농민을 착취하는 영국의 엔클로저운동을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며 통렬히 비난한 바 있는데 생시몽은 이러한 무정부상태를 모든 “재난 가운데 가장 매서운 재난”이라고 비난했다. 푸리에도 고용노동제도는 노예제도를 회복하는 것이며 자본주의 공장은 ‘따뜻한 감옥’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안적 공동체를 구상했다(Fourier, 1966/67). 오웬은 비참함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그런 변화의 동력이 외부의 힘보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갑작스런 혁명보다 사람들이 무지와 오류에서 벗어나며 서서히 자신의 세계에 눈을 뜨길 바랐으며 그렇게 눈을 뜬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며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원리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Owen, 1995).

이처럼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바람직한 미래의 사회체계로 개조하고자 했으며 그 실현방안으로 교육과 노동, 생활을 함께하는 이상적 공동체를 구상하고 실험했다. 즉,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처럼 역사법칙과 경제법칙의 분석에 입각한 계급투쟁의 방법에 의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기보다는 생산, 노동, 소비, 교육 등 소단위의 공상적 이상촌을 건설하여 이상적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푸리에가 구상하고 실험한 생활협동조합인 팔랑스테르(phalanstère)가 있고 오웬이 영국에서 실험한 뉴래너크(New Lanark) 공동체와 미국에서 실험한 뉴하모니(New harmony) 공동체가 있다. 이들의 사상은 이후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마오쩌둥 등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들에 의해 합작경제사상과 사회주의사상이 체계적으로 발전됐다. 엥겔스는 사회주의 발전 과정에서 생시몽, 푸리에, 오웬의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⁶⁾라고 했으며,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

주의로 구분하기도 했다.

둘째, 기독교적 사회주의 합작사상으로 여기에는 영국의 윌리엄 킹(William King)과 프랑스의 필립 뷔세(Philippe Buchez) 등이 있다. 윌리엄 킹은 노력, 자본, 지식을 합작사의 3대 요소라고 여겼다. 그 중에서도 노동력은 자본의 근원으로 봤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작을 한다면 자본을 생산할 수 있고 자본을 생산하면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더 이상의 자본가계급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가사회주의 합작사상으로 여기에는 독일의 라살르(Ferdinand Lassalle)와 프랑스의 루이스 블랑(Louis Blanc) 등이 있다. 이들의 주장은 비슷한 직업의 사람들이 국가의 지원하에 합작사 혹은 합작공장을 설립해 공동생산을 실시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는 합작생산을 조직할 수는 있지만 재력은 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무정부주의적 합작사상으로 여기에는 대표적 사상가는 프랑스의 피에르 푸르동(Pierre Proudhon)이다. 푸르동은 사람들의 충분한 자유를 빼앗는 정권과 정당을 타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가 정부나 국가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프랑스라는 국가를 열렬히 사랑한 민족주의자이기도 하다. 그가 부정한 것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중간상인의 개입으로 발생한 비노동력 수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노동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통해 고리대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오늘날 마이크로금융과 같은 서민소액대출 전문은행의 설립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처럼 공상적 사회주의사상을 비롯하여 공동체사상을 기초로 한 합작운동과 실천들이 산발적으로 있어왔지만 근대적 의미의 협동조합주의 즉,

6) 앞서 설명했듯 이들 세 명의 공상적 사회주의사상이 마르크스사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3대 사상으로 꼽히고 있다.

협작주의는 19세기 중반에 시작됐고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전했다. 첫째는 소비협동조합으로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지역에서 28명의 방직 노동자들이 설립한 로치데일 협동조합(Rochdale Equitable Pioneer Society)이다. 세계 최초로 설립된 로치데일 생활협동조합은 공상적 사회주의자 중 한 명인 오웬의 영향을 받아 설립됐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밀가루와 설탕으로 폭리를 챙기던 중간유통업자들에 맞서 세운 식품점으로 일종의 소비자협동조합이었다. 다른 하나는 1860년 독일의 작은 타운 플람머스펠(Flammersfeld)의 시장인 프로이드리치 라이파이산(Freidrich Raiffeisan)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이었다.

우선,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방직노동자들이 일인당 1파운드를 투자해 그들을 대신해 구매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서 도매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소매가격으로 사원들에게 판매해 그 이윤을 정기적으로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상인이 아닌 노동자가 이윤을 취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Holyoake, 1906). 반면, 라이파이산 신용협동조합은 라이파이산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당시 연속 2년 동안의 자연재해로 지역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많은 농민들이 높은 고리대금으로 인해 그들의 토지와 가축을 잃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설립했다. 이로 인해 농민은 약간의 자금을 출자해 일정한 기금을 조성한 다음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이들 두 협동조합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19세기 말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이미 1만 2천여 명의 사원과 연간 100만여 파운드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그리고 영국 전역에는 이미 1500여 개의 소비협동조합과 1천 2백만 사원이 생겨났다. 한편, 독일에서는 당시 천여 개 이상의 라이파이산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이 두 가지 형식의 협동조합은 이후 인근 서구 국가, 북미, 일본, 인도 등으로 확대되어 발전해 나갔고(Roy, 1969) 중국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국가는

소비합작사와 판매합작사 등 빈민구제와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한 합작사를 받아들인 반면에 중국에서는 푸리에 등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사상도 함께 받아들여 이를 사회주의 혁명과 신중국 성립 이후 사회주의 건설에 활용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하고자 한다.

2.3. 공상적 사회주의와 합작주의의 중국 유입

20세기 전후 중국 사회에 공상적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사상이 어떻게 유입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계속되는 서구의 무력 침략과 이후 서구 자본의 침입과 약탈로 인해 도시는 물론이고 농촌까지 경제적으로 피폐해 갔고 대내적으로는 오래된 봉건체제와 신홍 군벌체제로 인해 정치, 사회는 매우 혼란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자본의 약탈을 배척하고 구망(救亡)과 계몽(啓蒙)을 목표로 하는 많은 서구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립경제를 건설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적 근거가 되는 이들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다. 따라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합작의 전통이 있어왔지만 근대적 의미의 합작운동은 5.4운동 전후라고 할 수 있다.

만청(晩淸)에서 5.4운동에 이르는 시기, 서구의 공상적 사회주의사상과 협동조합사상의 중국 유입은 주로 개혁과 사상가, 외국 유학생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중국에 전해졌다. 먼저 공상적 사회주의사상의 중국 유입이었다. 이 사상은 근대 중국의 사상가인 Kang Youwei(1858-1927)의 저서 《대동서》에서 소개됐는데 이 저서에서 Kang Youwei는 서양의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과 유교적 이상사회의 전통을 접목해 태평사회인 대동세계를 설파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속에 들

어가 군중의 고통을 살핀다.” 2) “국가의 경계를 없애고 대지를 합친다.” 3) “계급의 경계를 제거하고 민족을 평등하게 한다.” 4) “종족간의 경계를 없애고 인류를 동등하게 한다.” 5) “남여의 경계를 없애고 독립을 보존한다.” 6) “가정의 경계를 없애고 하늘의 백성(天民)으로 삼는다.” 7) “산업의 경계를 없애고 생업을 공유화한다.” 8) “어지러움의 경계를 제거하고 태평하게 다스린다.” 9) “유계를 없애고 중생을 사랑한다.” 10) “고통의 경계를 없애고 극락에 이른다.”(李澤厚, 2010: 236-245) 총 10부로 구성된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동세계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된 차별의 기제를 없애고 모든 농공산업은 공공의 것으로 귀속하고 토지는 공유하며 사유재산은 부정되며 생산과 분배는 모두 계획하여 진행된다. 이런 대동세계에서 천하는 공(公)이 되어 계급이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하고 안락한 만민공동체가 된다는 것이다.

강유웨이와 이런 ‘세계낙원’의 환상과 사회의 필연적 발전을 확신하는 견해는 당시 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부합했고 객관적으로 화평한 생활에 대한 수많은 인민군중의 강렬한 바람을 담고 있으며 봉건지주 등 착취계급의 사상체계와 범위를 초월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강유웨이와 대동사상은 19세기 서구의 공상적 사회주의사상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강유웨이가 대동사상을 구상한 연대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죄악이 중국 인민의 면전에서 아직 철저히 폭로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생시몽처럼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자본의 근본적인 계급대립을 깊이 있게 볼 수 없었고, 사유제 이면의 계급이익의 충돌과 투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개량주의적인 ‘대동’공상은 부득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⁷⁾고 평가된다(李澤厚, 2010: 245-247). 그럼에도 불

7) 《대동서》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불만은 대부분 강유웨이가 무술정변 후 유럽과 미국에 가서 보충한 것으로 초기 사상이라 할 수 없다. 《대동서》에서 유럽과 미국 노동자 정당의 투쟁과 푸리에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아울러 ‘공공업’(公工業:

구하고 캉유웨이의 이런 이상적 대동사회는 마르크스-레닌의 계급혁명사상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전해지기 전에 중국의 반봉건과 반제국에 맞서 사회를 개조하고 이상적인 농촌공동체의 건설을 꿈꿨던 마오쩌둥 등 초기 공산혁명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두 번째, 협동조합사상의 중국 유입이었다. 이 사상과 실천은 주로 일본과 구미에서 귀국한 유학생의 역할이 컸다. 1900-1910년 북경대학(당시 京師大學堂)에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경제학 교수가 <산업조합>이라는 과목을 강의했다. 하지만 당시는 서구의 협동조합이 소개되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중국의 지식계층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 세력도 적을 뿐만 아니라 양대 주류 세력인 극진주의세력과 자유주의세력 간에 중국문제에 관한 긴밀한 대화도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노동대중에게는 별 영향이 없어 5.4운동 전후 잠시 유행하다 진전이 없었다. 일례로, 1918년 일본에서 귀국해 북경대학 법과의 후견(胡鈞) 교수가 이 대학 60여명의 학생과 함께 중국 최초의 협동조합인 북경대학소비공사(北京大學消費公社)를 설립했다. 그 후 상하이, 우한, 청두, 창사, 지난 등 대도시의 지식계층이 약 10여 개 소비협동조합을 설립했지만 2년을 넘기지 못했다(陳意新, 2001: 93).

이처럼 협동조합운동이 대중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답보상태에 있을 때 서구에서 협동조합사상과 협동조합경제이론을 습득하고 국내로 들어와 신용방면의 협동조합운동을 적극 추동한 인물은 웨시엔저우(薛仙舟)⁸⁾였다. 그는 일찍이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하며 경제학을 공부했고

공장을 공유로 귀속), '공상업'(公商業) 등을 주창한 것도 모두 나중에 첨가·보충한 것이다. 전기의 재산공유의 내용은 주로 '토지공유'였다. 그러나 이 토지공유 사상은 캉유웨이 당시 현실정강(政綱), 전체 개량주의 정치노선과 거리가 있었고 모순이 있다. 그러므로 캉유웨이는 이 책에서 이 점을 상세하게 논증하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李澤厚, 2010: 246-247).

8) 그는 '중국합작운동의 아버지(中國合作之父)'로 불린다.

귀국 후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협동조합사상을 적극 전파했다. 이후 1919년에는 중국에서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인 상해국민합작저축은행을 창립했으며 국민교육을 위해 《평민》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1920년 5월 그가 담임하고 있었던 푸단(復旦)대학에서 20여 명의 학생들과 평민주간사(平民周刊社)를 조직해 협동조합사상과 이론을 전파했고 이듬해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명칭을 평민학사(平民學社)로 변경하고 조직을 넓혀나갔다. 그 결과 평민학사는 1920년대 초기 협동조합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됐다. 중요한 것은 당시 평민학사의 학생들은 국민당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국민당 정부가 합작주의를 채택한 건국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⁹⁾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 등 공산당과도 상호교류가 있었다(陳意新, 2001: 93, 102). 특히, 국공합작(國共合作)시기 공산당과 국민당은 1924년 7월 평민학사가 학교 중심에서 정치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설립한 전국합작운동협회(全國合作運動協會) 등에 참여하면서 서로 협력과 교류를 하며 협동조합운동을 지지했는데 마오쩌둥도 이 조직에 참여했다.¹⁰⁾ 하지만 1920년대 말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이 웨시엔저우

9) 1927년 국민당 정부가 난징에서 설립된 후 당 지도부의 부탁으로 웨시엔저우는 《전국합작화방안》이라는 건국계획서를 국민당 정부에 제출하고 합작위원회를 통해 그 정책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잡자기 병사하는 바람에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10) 평민학사가 해산 후 국민당원과 공산당원은 평민학사의 학생들과 함께 상하이에서 중국합작지도자들이 대연합을 할 수 있는 전국합작운동협회(全國合作運動協會)의 설립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평민학사와 국민당이 주도한 이 토론회에 마오쩌둥도 그들의 배려로 참석했고 토론회에서 그는 국민당원인 천귀푸(陳果夫)와 예추창(葉楚暉), 평민학사의 취사오리(許紹棧)와 장팅하오(張廷灝) 등과 함께 조직 설립을 위한 5인 준비위원회(5人籌備委員會)의 위원으로 뽑혔다(陳意新, 2001: 100). 이 같은 결과는 마오쩌둥이 합작운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가 있었고 이전부터 평민학사와도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1922년 그의 동생인 마오쩌민(毛澤民)을 안위안(安源)으로 보내 루광구락부소비합작사(路礦俱樂部消費合作社)를 맡게 한 것은 이를 잘 증명한다.

가 병사하고 더욱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분열하면서 협동조합운동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더욱이 일본의 중국 침입과 국공 내전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은 온건한 사회개조운동인 협동조합운동에 별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운동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었다. 국민당 정부 진영에서 관심을 가졌던 신용과 소비협동조합운동은 점점 힘을 잃었지만 공산당 진영에서는 기존의 협동조합운동과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의 계급투쟁이론 및 합작이론을 접목해 새로운 형태의 농촌합작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이를 농민해방혁명인 공산혁명의 기틀을 닦는 데 적극 활용했다.¹¹⁾

3. 사회주의 건설과 농촌합작운동

3.1. 공산혁명기 농촌합작운동¹²⁾

앞서 설명했듯 중국은 민국(民國)시대 진입하면서, 특히 5.4운동 이후

-
- 11)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자 중심의 계급혁명론에 많은 중국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공감을 하게 됐고 이를 중국에서 실현하기 위해 1921년에 중국공산당을 성립했다. 이후 공산당은 노동자계급혁명보다는 중국인구의 대다수인 농민해방을 우선시해 농민해방운동을 적극 전개한 공산혁명을 전개해 역사적 고난을 이겨내고 1949년 신중국을 성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노동자와 도시 중심의 계급혁명론은 농업국가인 중국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이론을 어떻게 중국에 현실화시킬 것인가는 신중국 성립 이전이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산당 지도부들의 난제 중의 하나였다. 즉,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주의 이론이 대명제라고 한다면 이를 현실에 구체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적 체제의 틀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틀의 각론이 바로 합작화 혹은 합작체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 12) 여기서부터 합작의 의미는 기존의 협동조합의 의미와는 달리 공산혁명적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합작사를 협동조합이라고 하지 않고 중국식 표현인 '합작사'로 표기하고자 한다.

서구의 협동조합사상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국민당은 협동조합사상에 대해 비교적 많은 학습을 했고 이를 통해 합작사상을 건국의 중요정책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반면 초기 공산당은 합작사상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다가 1925-26년 국민혁명이 고조되었을 때 그들은 합작운동을 혁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마오쩌둥은 이전부터 합작운동에 관심을 갖고 평민학사 회원들과 교류를 했으며 1919-1920년 사이에는 무정부주의 성격의 조합체인 신촌(新村), 공동호조단(工讀互助團), 자수학사(自修學社) 등의 활동을 주동적으로 이끌었다(陳意新, 2001: 97-100). 1924년 이후 합작운동이 국공합작의 분열, 도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실패, 평민학사의 정치운동 참여 등의 영향으로 마오쩌둥은 합작운동을 마르크스-레닌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중국 특유의 실사구시 전통을 결합하여 농촌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농민혁명운동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했다.

마오쩌둥은 1926년 농민혁명운동 당시 농민운동강습소에서 〈농촌합작개론〉 과정을 개설해 마르크스-레닌의 합작사상¹³⁾으로 농민운동간부들을 무장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민운동간부들은 소비·판매·신용을 위주로 하는 합작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다(李小娜, 2009: 7). 또한 그는 1927년 3월 《호남농민운동고찰보고》에서 농민합작사의 발전을 14개 중요사업 중 하나로 책정하고 실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소비·판매·신용 등 세 가지 합작사가 농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3)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합작사를 공산주의의 과도단계로 구상하고 합작사를 소농을 개조하는 형식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제도하의 농업을 개조하는 주요한 조직형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엥겔스는 농업조합은 저급에서 고급까지 건설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작사를 건설할 것인가는 각 상황마다 다르다고 해 이후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사고의 여지를 남겨두었는데(王貴宸, 2006: 120) 결국 소련에서의 합작사는 공업화와 전전화(戰時化) 그리고 식량위기 속에서 스탈린에 의해 집단농장체제로 변질된 것은 후에 많은 논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상인들과 고리대금업자에게 철저히 착취를 당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 종류의 합작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인 마오쩌둥은 청년시기에 이미 마르크스사상과 서방의 농촌합작사상을 습득하고 이를 현실세계에서 적극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⁴⁾

이러한 영향으로 해방전쟁시기에 마오쩌둥과 해방군은 활동 근거지에서 많은 수의 합작사를 설립했다. 그는 1943년 10월 시베이(西北)고급간부회의에서 전문적으로 당시 합작사문제에 대해 강연했다.¹⁵⁾ 그리고 같은 해 11월 마오쩌둥은 섬감녕변구(陝甘寧邊區)¹⁶⁾ 노동영웅대회에서 “組織起來(조직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중국농촌의 향후 경제사회적 발전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농민대중들은 거의 모두 몇 천 년 동안 개체경제로 매 농가마다 하나의 생산단위였다. 이처럼 분산된 개체생산, 즉 봉건적 경제기초로 말미암아 농민 자신은 영원한 빈곤상태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점차 집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체화하는 유일한 길은 레닌의 말처럼 합작사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농민합작사를 조

14) 혁명시기에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계급투쟁으로 인해 합작운동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중혁명의 각도에서 합작운동을 창도했다. 광저우농민운동강습소에서 마오쩌둥과 위쭈더(於樹德)는 합작사를 농민운동의 한 교과목으로 삼았고 이를 통해 합작사상은 광둥, 후난, 후베이, 장시의 농민협회지도자들이 받아들여게 됐다(林綿文, 연도 미상). 1926년 겨울 후난의 많은 농민들은 소비, 판매, 신용합작사를 조직했는데 이들 합작사는 후난 농민운동의 '14대 사건의 하나로 기록되었다(毛澤東, 1966: 12-14).

15) 그의 강연 내용은 다음해 2월 《群衆》지에 〈論合作社〉라는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16) 오늘날의 중국 서북지역인 산시성, 간쑤성, 닝샤자치구.

직했지만 현재 이들 조직은 일종의 초급형식의 합작사로 앞으로 얼마간의 발전단계를 거쳐야 장래 집체농장과 같은 소련식 합작사로 발전될 수 있다. 우리의 경제는 신민주주의이며 우리의 합작사는 변함없이 개체경제의 토대(사유재산 기초) 위에서 건립된 집체노동 조직이다.”(《毛澤東選集》 제3권, 1991: 91)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오쩌둥이 건설하고자 하는 합작사의 형태는 집단농장과 같은 소련식이라기보다는 신민주적이고 개체경제, 즉 개인재산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 건설하는 집단노동체제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합작사는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구식 자본주의 성질의 합작사가 아니라 일종의 신식 자산계급 민주주의 성질의 합작사임을 규정했다(周揚明 & 張崇康, 1993: 38). 농촌합작경제의 형태에 대한 마오쩌둥의 이러한 사상은 중국이 해방을 맞이한 이후 한동안 계속 유지되었고, 신중국 성립 이후 합작사 건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을 때에도 자원호리(自願互利: 합작사 가입은 농가의 자유의지이며 상호간에 실리가 있어야 함), 전형시범(典型示范: 각 지역에서는 시범적인 합작사 설립을 통해 확대 보급함), 인지제의(因地制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합작사 제도를 유연하게 규정함), 다종합작형식병중(多種合作形式並重: 여러 종류의 합작형태를 모두 중시함), 순서점진(循序漸進: 순서적이고 점진적으로 합작사를 설립·운영함), 은보발전(穩步發展: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의 원칙을 견지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별 농가의 적극적인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합작경제의 우월성을 발휘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해방 이후 추진한 토지개혁, 그 후 신중국 성립 이후 중앙의 지도자들은 농촌의 합작경제체계는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과도기로 보았고 진정한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데에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역사발전에 대한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자본축적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중국 성립 전인 1948년 9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류샤오치(劉少奇)는 〈신민주주의경제건설문제〉라는 주제로 강연할 때 이미 소생산자를 단결시키는 방법으로 합작사형식을 제안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지나치게 서둘러 사회주의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화베이(華北) 재정위원회회의의 석상에서 신민주주의 경제 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민주주의경제는 자본주의경제인가 사회주의경제인가? 둘 다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성분이며 또한 자본주의 성분이다. 이것은 일종의 특수한 역사형태이며 그 특징은 과도기의 경제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자본주의를 지나 사회주의로 건너가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과도기적 성격은 오래 지속될 수 없지만 하나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도기는 아마 10년에서 15년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무산계급에 유리하다.”(《劉少奇論新中國經濟建設》, 1993: 54)

이처럼 류샤오치는 합작사문제에 대해 체계적 논술을 전개하며 합작사의 중요성과 신중한 추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1954년 여름을 전후로 합작경제의 발전 중에 급진적이고 강압적 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1955년 마오쩌둥이 《關於合作化問題》(합작사문제에 관하여)라는 보고를 발표하면서 현재 합작사 건설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운동의 방식으로 합작화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합작화 과정 중에 조금증세를 더욱 가중시켰고 결과적으로 합작경제에 대해 그가 여러 차례 강조한 원칙을 위배하게 되었다(周揚明 & 張崇康, 1993: 41). 이 시점을 기점으로 중국 농민들은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매우 불리한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3.2. 신중국 성립 이후 농촌합작화 속도를 둘러싼 논쟁과 대립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농촌합작화의 진전 속도에 대한 논쟁이 줄곧 있어왔다. 이 논쟁에는 두 개의 계파가 서로 대립했다. 하나는 농촌합작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급진파(冒進派)이고 그 대표적 인물은 전 중공 산시성위(山西省委)¹⁷⁾ 제1서기였던 타오루자(陶魯筋)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10년 내지 15년) 동안은 개별 농가의 자본축적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급하고 과도한 합작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반급진파(反冒進派)로 그 대표적인 인물은 류샤오치(劉少奇)였다. 당시 이 두 파간의 논쟁은 격렬했는데 결국에 가서 마오쩌둥은 급진파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렇다면 왜 마오쩌둥이 이처럼 조급하고 무리하게 합작화를 추동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50년대 초에 진행된 급진파와 반급진파 간의 논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타오루자(陶魯筋)의 기록에 의하면, 1951년에 산시성(山西省)에서 초급농업합작사의 설립에 관한 지도자들 간 논쟁이 있었다고 했다. 이 논쟁의 본질은 토지개혁 이후 농촌은 합작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어떻게 합작화, 나아가 집체화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사실 토지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타오(陶)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은 토지개혁 이후 농촌에서는 일부 중농화(中農化)가 나타났다고 한다. 즉, 토지개혁이 이뤄진 지 3년이 경과할 무렵 농민의 계급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한 것이었다. 그래서 1950년 봄, 중공 산시성위는 농촌공작회의(農村工作會議)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왕첸(王謙)의 보고에 따르면, 그해 들어서부터 창쯔지구(長治地區)에 과거 몇 년간에는 없었던 토지매매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 대다수가 중농이었던 농촌에서 다시 부농

17) 이는 산시성의 공산당위원회를 뜻한다.

과 빈농으로 나뉘는 양극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은 곧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산혁명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계급 양극화현상(특히 다시 부농이 출현하는 현상)에 대해 산시성을 제외하고는 중공 중앙이나 기타 지방정부에서 그다지 중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시성 위은 자체적으로 십여 곳의 초급합작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이러한 내용을 중공 중앙과 화베이국(華北局)에 산시성 노구(老區)¹⁸⁾ 호조조(互助組)의 실제상황을 보고한 후 초급합작사의 시범 운영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 결과 이러한 제기는 중공 중앙의 지도자들 간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¹⁹⁾

특히, 1951년 5월 반급진파의 대표인물인 류샤오치는 전국선전대회에서 산시성위의 이러한 건의를 비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농업합작사와 호조조(互助組)의 방법으로 바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일종의 공상(空想) 농업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공산당 내 많은 동지들이 농업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샤오치 이외에도 보이보(薄一波)와 류란타오(劉瀾濤) 등도 산시성위의 보고와 건의에 대해 비판했다. 그들은 중국의 공업화가 없이, 중국농촌에 트랙터가 있기 전까지는 농업합작사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농촌에 어느 정도 기계화 농업이 가능해야 그들 스스로 자원하는 조건하에서 집체화가 가능하며 나아가 소련식 집단농장의 건립이 가능하다고 여겼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18)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에 이미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던 지역.

19) 이러한 논쟁은 마오쩌둥과 류샤오치 등 고위지도자들이 건국에 대한 그들의 사상적 차이를 노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급진파와 반급진파 간 논쟁에서 급진파의 승리로 이후 중국 역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급진파 사상이 직접적으로 투영된 고급농업합작사, 인민공사, 대약진운동 그 후 초래된 대기근의 재앙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르면, 이제 막 시작한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했는데 토지사유화를 실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유제를 취소한다면 농민들의 격렬한 반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합작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 기간 자본축적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산시성위 지도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합작사상을 빌려 호조합작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²⁰⁾

3.3. 농업합작체계의 확립

농업합작사 실시에 관한 이러한 일련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인물은 다름 아닌 마오쩌둥이었다. 그는 마지막에 반급진파인 류샤오치, 보이보, 류란타오와의 담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산시성위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농업합작사 실시를 둘러싼 급진파와 반급진파 간의 논쟁은 끝이 났다. 그 후 1953년부터 전국 범위에서 정식으로 추진된 초급합작사는 1957년에 이르러 고급합작사로 발전을 했으며 이후 1958년부터는 인민공사(人民公社)로 완성되었다.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 신중국 성립 이후 기본적인 농업노동의 합작형태인 호조조가 조급씩 형성되다가 농업합작화에 대한 논쟁이 1953년 종지부를 찍은 2년 후인 1955년 생산, 소유, 노동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유되는 초급합작사에 참여한 농가의 비율은 58.7%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후 다시 생산, 소유, 노동, 생활이 완전한 공동소유제

20) 류샤오치는 이미 중국농촌합작경제의 발전단계를 구분해 농촌공업합작사의 발전을 주장했다. 그는 1948년 9월 중앙정치국회의 상에서 “농촌합작경제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상위 단계는 수공업과 농업합작사이고 하위 단계는 농업변공합작(農業變工合作)이다.”고 주장했다(張同奇 & 郭靜, 2001: 35).

인 고급합작사가 급속히 발전해 1957년에는 95.6%의 농가가 여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1955년 고급합작사가 형성된 지 불과 3년 만에 농가 대부분이 여기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표 1〉 연도별 중국 농업합작화 발전 현황

연도 조직형식(단)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 호조조 수	272.4	467.5	802.6	745.0	993.1	-	-	-
참가 농가수	1131.4	2100.0	4536.4	4563.0	6847.8	-	-	-
참가비율(%)	10.7	19.2	39.9	39.2	58.4	-	-	-
2. 초급합작사수	18(개)	129(개)	3634(개)	14171(개)	11.4	190.0	21.5	3.6
참가 농가수	187(호)	1588(호)	5.7	27.3	228.5	7000.0	1040.0	160.0
참가 비율(%)	-	-	-	-	1.9	58.7	8.6	1.3
3. 고급합작사수	1(개)	1(개)	10(개)	15(개)	200(개)	13.8	54.4	75.3
참가 농가수	32(호)	30(호)	0.2	0.2	1.2	400.0	10740.2	11945.0
참가 비율(%)	-	-	-	-	-	3.4	88.4	95.6

자료: 王貴宸 編著. 2006. 『中國農村合作經濟史』, 山西經濟出版社, p.317.

그 후 1956년 8월을 기해 고급합작사의 범위와 기능을 확대해 완전한 공산사회주의의 기본 형태인 인민공사가 전국적으로 설립됐다. 인민공사는 고급합작사를 합병하고 지역의 행정기관과도 합체하여 조직된 정치·경제·사회의 합일조직이었다. 더 나아가 인민공사는 농민과 농촌조직을 생산대-생산대대-인민공사와 같은 조직형태로 전환하면서 군대조직의 성격도 동시에 띠게 되었다. 따라서 신중국 성립 전후 실시한 토지개혁 이후 다시 출현하기 시작한 토지의 집중과 부농의 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조조부터 시작한 농업생산합작사는 결국 농업, 공업, 상업, 교육, 군사 등을 요소를 포함한 ‘이상적’ 공동체의 실험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4. 급진적 농촌합작화 추진 배경과 그 평가

이처럼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불과 4내지 5년 내에 농업집단소유체인 인민공사가 급속히 완성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전에 대다수 중앙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0내지 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오쩌둥이 이처럼 급격하게 농촌합작화를 실시한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추동, 공산당에 대한 농민의 신뢰, 군중대회 등을 통한 질풍노도식 선전 활동, 부농과 중농에 대한 비판, 소농의 평균주의, 자원원칙을 무시한 강압적 위세 등이 작용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마오쩌둥 개인의 사상적 배경과 당시 시대적 배경이 동시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4.1. 마오쩌둥의 이상주의와 공상적 사회주의의 실현

농촌에서 출생해 당시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실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마오쩌둥이 류샤오치를 대표로 하는 반급진파²¹⁾의 점진적 농업사회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이상적’ 농촌합작체계인 인민공사를 급진적이면서도 무리하게 추동한 사상적 배경에는 그가 젊은 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농민평균주의사상 즉, 이상주의에 대한 추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이상주의는 공상적 사회주의사상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생각한 이상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민들이 잘 살려면 함께 잘 살고, 못 살려면 함께 못 살자는 사상으로 빈부의 선후와 고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입장에

21) 그 외 반급진파 인물로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천윈(陳雲), 리셴넨(李先念) 등이 있다.

서 봤을 때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경제는 여전히 소농경제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함께 잘 살자는 농업사회주의와 평균주의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신민주주의 경제건설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을 추진하고자 했던 류샤오치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산시성위가 주장한 농업합작사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그리고 초급합작사의 전면 실시 이후 속도를 내어 그의 '이상적' 농업공동체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공사를 건설했다. 그의 이상주의는 여러 면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와 닮은 점이 많은데 그는 이러한 이상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가들로부터 직접 흡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가 젊은 시절 숭배한 개혁파 사상가인 캉유웨이를 통해서 흡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시절 마오쩌둥은 중국 근대화 초기 대표적 사상가 중의 한 명인 캉유웨이가 그의 저서 《대동서》²²⁾에서 국가, 계급, 가족을 없애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잘 사는 이상사회로 묘사한 대동사회에 관한 내용을 읽고 감탄한 나머지 그를 자신의 영웅호걸이라 칭송하며 이러한 이상적 대동사회를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부터 대동사회의 모습을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설계하고 실험하고자 했다. 1919년 12월, 마오쩌둥은 《學生之工作》(학생의 사명)에 발표한 글에서 웨루산(岳麓山)에 신가정, 신학교, 신사회를 결합한 하나의 생활·노동협력 공동체인 '신촌(新村)'을 설립할 것을 제창했다(許文驪, 2000: 82). 이 글에서 그는 '신촌'의 학생들은 농원을 만들고, 농업과 축목업에 종사해 학생들이 농촌을 버리고 맹목적으로 도시로 떠나는 시대적 병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촌'에서는 공공유아원, 양로원, 학

22) 그의 사상체계는 이 책에 잘 나타나있다. 여기서 '대동'은 《禮記》의 〈禮運編〉에 나오는 말인데, 그는 중국 고대의 '대동'사상을 단순하게 발전시켜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상사회론과 사회진화론을 고대의 '대동'사회에 접목시켰다(池田 誠, 1985: 68-71).

교, 도서관, 은행, 농장, 공장, 소비협동조합, 극장 등 복지시설을 갖추고 이러한 공동체 건설을 통해 학교와 사회가 하나로 융합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이러한 마오쩌둥의 공동체사회에 대한 세밀한 설계는 바로 kangyuei의 대동사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5.4운동 이후 혁명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상적 대동사회의 건설을 농업합작운동으로 실천했고 신중국 성립 이후 추진한 농업합작사가 1956년 고급합작사로 사회주의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후 그가 젊은 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대동사회와 공상적 사회주의의 이상촌을 인민공사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다. 마오쩌둥은 1958년 8월 농촌합작체계를 전국적으로 완성한 후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감격에 겨운 어투로 “공상적 사회주의의 이상을 우리가 실행하자”고 말하며 인민공사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그에 앞서 1958년 6월 류샤오치는 전국부련(全國婦聯)의 당조직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자의 생각은 당시에 실현할 수 없는 조건에 있었다. 하지만 현재 마르크스주의자가 계급투쟁을 쟁취해 이미 계급이 소멸했거나 소멸 중에 있다. 이렇게 공상적 사회주의자가 실현하지 못했던 공상을 실현했다.”고 말했다(羅平漢, 2006). 특히 그가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봉건적 가족제도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주창했다.

이처럼 마오쩌둥 등을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가 이상적 공산사회의 기본 단위로 구현하고자 한 인민공사는 공상적 사회주의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 공산주의는 젊은 시절 kangyuei의 대동사회를 통해 접했고 이후 공산혁명의 과정에서 공상적 사회주의를 심도있게 습득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오쩌둥이 구현하고자했던 이상사회인 인민공사는 kangyuei의 대동사회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사상과 실천, 즉 생시몽의 대륙형 자본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된 생시몽주의, 로버트 오웬의 뉴래너크 공동체와 이상촌인 뉴하모니

(New harmony), 샤를 푸리에가 구상하고 실험하기도 한 집단소유의 공동조합인 팔랑스테르(phalanstère) 등과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캉유웨이의 대동사회는 푸리에가 그의 저서 《*Le nouveau amoureux*》(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이하 신세계>)에서 주장한 ‘문명’비판과 공동체 건설, 그리고 여성해방 등의 이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何金彝, 1996).

푸리에에는 그의 저서 《신세계》에서 18세기 프랑스 부르주아지의 기만적 행위와 노동자 계급 착취,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부르주아지의 학문과 도덕 등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현실세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소위 ‘문명사회’에 대해 비판을 했다. 즉, 그는 문명화된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 회의’와 ‘절차적 편차’를 통해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다. 그 세계는 푸리에가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파악했던 이른바 ‘열정적 인력(引力)’을 토대로 형성되는데 그는 열정적 인력의 법칙을 통해 ‘조화’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푸리에에는 이 조화로운 사회를 가리켜 ‘신과의 일치’를 이룬 사회라 규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공동생활조합체인 ‘팔랑스테르’이다(Fourier, 1966/67). 공동생활체 조직인 팔랑스테르의 구체적인 특징을 보면, 팔랑스테르에서는 공동체가 가족을 대체하며, 혈족관계나 지배, 피지배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각 공동체의 구성원은 1천 6백에서 1천 8백 명으로 구성되고 작업장, 식당, 집회소, 극장, 도서관 등을 갖춘 광대한 건물 속에서 살며 협동조합생산에 의해 수입을 각자가 그 생산에 제공한 노동과 자본의 양에 따라 분배하여 안정된 생활을 실현하는 이상적 공동체이다. 이러한 푸리에의 공동체사상은 공동체조직의 단위와 규모, 사유제의 인정 여부, 공동체에 대한 종교적 윤리문제 등에 대해 캉유웨이의 대동사상²³⁾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명 발전에 대한

23) 대동사회의 특징은 국가를 폐지하고 전세계에 하나의 총괄정부 설치하고, 가족제도를

비판적 해석,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통렬한 비판, 가족제도의 개선과 여성해방, 농업과 노동조합의 중시, 공상적 이상사회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이후 마오쩌둥이 생산과 소유의 공유화, 농업·공업·상업의 다면적 경제조직화, 생활(탁아소, 진료소, 양로원 등)·교육(학교)·군사(민병조직)의 종합조직화를 모토로 건설하고자 했던 공산사회주의 이상촌, 즉 인민공사의 건설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할 수 있다.

4.2. 공업화 우선 정책과 전쟁에 대한 방비(防備)

급진적 농촌합작체계를 완성한 배경 가운데에는 위에서 말한 마오쩌둥 개인의 사상적 배경을 제외하면 시대적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신중국 성립 이후 공업화 우선 정책의 실시이다. 마오쩌둥은 낙후된 중국의 경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그 동안 억눌렸던 경제적 자주권의 회복을 통해 서구 열강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려는 강력한 욕망이 분출했다. 하지만 초기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자본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농촌으로부터 자본의 전이가 필요했다. 그래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착취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농촌사회의 집체화가 필요했고 잉여를 창출하기 위해 농산물에 대한 협상가격차제도의 실시가 필요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마오쩌둥의 공업화와 노동자 우대정책과 농촌과 농민 홀대에 대해 류사오치 등 반급진파뿐만 아니

폐지하고 대신 태교원(胎敎院), 육영원(育嬰院) 양병원(養病院), 양로원 등을 설치해 가족제도를 대체하고 성인남녀는 군복무처럼 사회복지 시설에서 몇 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한다. 성인남녀는 의무적으로 농업, 공업 등 생업에 종사하고 공공숙소, 공공회합소를 설치하여 노동에 의한 수입으로 자유로이 이용한다. 나태에 대해서는 경고와 형벌이 있으며 사망 시 화장하며 화장터 부근에 비료공장 설치 등이다(池田 誠, 1985: 70-71).

라 중국 건국의 공신이기도 한 사상가 량수밍(梁漱溟)도 마오쩌둥과의 논쟁을 통해 철저하게 비판했다. 량수밍은 중국의 건국은 농민의 협력과 지지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국 성립 후 마오쩌둥의 총노선(總路線)은 반드시 농민을 보살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러한 생각은 공맹(孔孟) 무리와 같은 인정(仁政)이라고 폄하하며 농민을 돌보는 것은 소인정(小仁政)이고 중공업을 발전시켜 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이룩하는 것은 대인정(大仁政)이라고 하면서 소인정은 대인정에 복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주장을 각하시켰다.²⁴⁾ 이 때문에 중국 사회주의 발전에 있어 농업과 농민의 중심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온 마오쩌둥도 국가의 경제적 발전 전략 및 관리 방식에 내재된 도시편향성으로 인해 농민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도시노동자들의 그것을 위해 구조적으로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장경섭, 1996: 309).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신중국 성립 이후 대내외적으로 조성된 전쟁에 대한 위협이다. 위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다시피 중국은 개화기 이후 계속해서 서구 열강들에게 공격을 당해 결국 중국의 주요 항구가 열강들에게 조계지로 넘어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또한 오랜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내전으로 국가 전체가 파탄의 위협까지 이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중국을 성립한 마오쩌둥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기틀과 외부의 위협에 방어하기 위해 빠른 공업화와 병영체제와 같은 집체화된 사회조직체계가

24) 량수밍(梁漱溟, 1893-1988)은 중국 현대 사상가이며 현대 신유학의 대표인물 중 한 명이다. 1917-24년 북경대학 철학과에서 인도철학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가난한 중국농촌과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1930-37년 향촌건설운동에 투신하기도 했다. 마오쩌둥과는 막역한 사이이지만 혁명노선의 차이로 마오쩌둥을 가장 강하게 비판해 마오쩌둥으로부터 “以筆殺人”, “僞君子”, “徹底反動思想”이라고 매도당하기도 했다(羅平漢 2004). 하지만 그는 마오쩌둥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를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으며 농촌은 여전히 중국의 근본이라고 여겼다.

필요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모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소련의 경제발전모델과 집체화된 사회조직체계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신중국 성립 이후 마오쩌둥은 소련식 경제발전모델과 농촌집단체제를 철저히 모방하려고 했고 그러한 체계가 중국의 농업합작체계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전쟁에 대비하고 식량을 합리적으로 공출하기 위해 농업합작조직체계를 어떻게 병영조직체계로 만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농업합작조직의 관리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민공사의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三級所有, 隊爲基礎”를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서 ‘三級’은 ‘生産隊-生産大隊-人民公社’²⁵⁾라는 3단계의 조직체계를 말하며 이는 기존의 농촌행정조직을 대체하는 조직체계로 발전해나갔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군대의 편제를 모방한 조직형태임을 알 수 있다.

4.3. 1950년대 농촌합작운동에 대한 평가

1950년대 중국 농업합작화의 핵심적 쟁점은 바로 농업합작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산시성위를 대표로 하는 급진파와 류샤오치 등을 대표로 하는 반급진파는 신중국 성립 이후 불거진 토지 재집중화와 빈부격차의 문제, 자본축적의 문제, 공업화의 문제 등을 토대로 농업합작화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결국 최종결책자인 마오쩌둥은 크게 세 가지 요인, 즉 이상적 공산사회주의 건설, 강대국을 초월하기 위한 공업화 우선 추진, 그리고 전쟁의 위협에 대비한 농병(農兵)체제의 확립 등의 요인에 의해 급진파의 의견에 찬성을 했고 호조제에서 인민공사까지 농촌

25) 인민공사 시기에 고착화된 이러한 조직체계의 명칭은 현재까지 중국 농촌에서 남아있어 나이 든 촌민들 가운데에는 마을을 ‘따뭉이(大隊)’, 진(鎮) 정부를 ‘공췌(公社)’라고 부르곤 한다.

합작화를 불과 5~6년 만에 완성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무리하고 조급한 농촌합작화는 결과론적으로 인민공사 성립 이후 3년간(1959~61년) 수 천만 명이 아사하는 대기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대기근 발생 이후 중국 당국은 대기근의 근본적 원인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기도 했지만 이후 지식계층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대기근의 원인은 극단적 공산주의체계의 실험체인 인민공사체제의 모순으로 발생한 인재임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당시 마오쩌둥의 이러한 결정은 중국이 신중국 성립 이후 국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선택임에 동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진적 농업합작화 추진 세력에 손을 들어준 마오쩌둥의 선택과 이후 그가 강력히 추진한 인민공사에 대한 결과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마오쩌둥은 젊은 시절 중국사회가 혼란에 빠졌던 시기에 중국사회를 개조하기 위해 공상적 사회주의사상, 협동조합사상(합작주의사상), 마르크스-레닌사상 등 다양한 서구사상을 흡수했고 이를 혁명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중국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이상적 사회의 최종목표였던 인민공사는 당시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에서 현실과 괴리되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지만 그 요인은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마오쩌둥 개인이 젊은 시절 학습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공상적 이상론에 대한 무리한 추진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농촌합작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젊은 시절 사상형성의 과정과 내면의식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1919년 5.4운동을 전후로 서구열강의 침입으로 인한 자본침탈을 막고 봉건적 사회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서구의 협동조합사상을 받아들여 도시지역 위주의 생산·소비·판매·신용 등의 협동조합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사회개혁사상가인 캉유웨이 등을 통해 서구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을 흡수해 이상적 사회적 사회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했다. 1920년대 말부터는 공산혁명이 노동자 중심의 계급투쟁에서 농민해방혁명으로 전환되면서 공산혁명이 완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생산합작사의 건립이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대명제를 주창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농업합작화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되어왔다. 왜냐하면 합작화 문제가 곧 사회주의 건설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농업합작화는 호조제를 시작으로 초급합작사, 고급합작사 그리고 많은 논쟁과 갈등을 겪으며 인민공사로 발전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근이라는 막대한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주요하게는 서구의 합작사상을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정치와 이상주의로 도구화함에 따라 서구의 공상적 사회주의가 실패하듯 중국에서도 결국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상적 사회주의사상과 협동조합사상의 실천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봉건적 사회를 개조하고 주권을 탈취하고 자본을 침탈하는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국가와 사회를 개조하고 농민들의 경제수준을 개선하고자 했던 역사적 실험과 실패의 과정은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많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상적 공동체 건설을 통해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고 농업합작사를 통해 농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던 실험과 도전은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중국의 농촌현실에

도 많은 교훈과 함의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에 의해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1984년 인민공사체제가 해체되고 다시 개별 농가단위로 농업생산체제가 도입되었지만 1990년대 농업산업화의 추진과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농촌과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정부당국의 핵심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2005년 <사회주의 신농촌건설>²⁶⁾을 추진을 시작했고 이어 2006년 <농민전업합작사법>²⁷⁾을 제정해 공표했다. 전자는 중국 농촌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조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캉유웨이의 대동사회, 마오쩌둥의 인민공사에 이어 21세기 이후 중국농촌사회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후자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농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농업합작화 문제를 다시 농촌문제의 해결의 핵심 방안 중의 하나로 중시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에 적극 대비하고 대내외적으로는 새로운 기술과 자본에 의한 농업생산의 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농업합작사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해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농민들이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새로운 형태의 합작사를 활성화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적응해 나아감으로써 도농격차로 촉발된 농촌소득문제를

26) 2005년 10월 중국 공산당 16차 5중전회의에서 통과된 《十一五規劃綱要建議》(11·5규획강요건의)에서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은 우리나라 현대화 과정에서 중대한 역사적 임무이며 “생산의 발전(生產發展), 여유있는 생활(生活寬裕), 현대적 풍속(鄉風文明), 정결한 농촌(村容整潔), 민주적 관리(管理民主)”를 통해 이를 착실히 추진하고자 했다.

27) 이 법은 2006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이듬해 7월에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농가 스스로 경제적 소득향상을 위해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 판매, 저장, 가공, 농자재 구매 등의 조직을 만들 경우 이 조직체에 관한 원칙과 농가의 권익을 규정하고 있다.

농민 스스로 적극 개척하는 데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돕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 농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신농촌건설과 농업합작화 문제의 뿌리는 신중국이 성립되기 이전 즉, 1920년대 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고 신중국 성립 직후인 1950년대에 이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농촌공동체 건설과 농업합작화에 대한 논쟁을 깊이 고찰하고 이해한다면 현재 중국 농촌에서 다시 대두되고 있는 신농촌건설과 농업합작화의 추진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6년 이후 농가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민전업합작사 설립사업은 현재 그 규모와 범위, 추진 속도, 추진체계, 사업의 종류, 정부 지원 등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논한 과거 농촌합작화의 경험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향후 농업합작조직의 올바른 재조직화와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 김승일. (2009). *모택동: 13억 인구의 정신적 지주*. 서울: 살림출판사.
- 박경철. (2010). 중국의 도농 불균형 발전과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수정. *중국농업 동향*, 3(1), 42-55.
- 박경철, & 김성수. (2001). 지역사회 친밀도의 최근 연구와 관련변인 고찰. *한국농촌지도학회지*, 8(2), 201-208.
- _____. (2002).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간 지역사회친밀도 비교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9(1), 87-100.
- 배성희. (2010). 중국의 농민 소질과 농촌인력자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와 개발*, 16(2), 285-305.
- 윤준상. (2010). 중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효과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농촌지도와 개발*, 17(2), 213-232.
- 이진경. (2007). *모더니티의 지층들: 현대사회론 강의*. 서울: 그린비.
- 장경섭. (1996). 구계급, 신계급, 선부(先富)계급: 개혁기 중국 농촌의 사회경제적 분화. *한국사회학회지*, 30(여름호), 305-330.
- 池田 誠. 한선모 譯. (1985). *中國現代革命史*. 서울: 靑史.
- 菊池一隆. (1992). 中國初期合作社史論: 辛亥革命前後から一九二三年までを中心. 狹間直樹編. *中國國民革命の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出版, 637-705.
- 陶魯筋. (2009). 建國關於建立農村合作社的高層爭論(上, 中, 下). 영국파이낸셜타임즈 중문망(<http://m.ftchinese.com/>).
- 羅平漢. (2004). *農業合作化運動史*.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 _____. (2006). *天堂實驗: 人民公社化運動始末*.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 馬蘭. (2001). 我黨農業合作經濟思想的歷史發展及現實意義. *常熟高專學報*, 第1期, 17-19.
- 毛飛. (1920). 經濟革命中的社會主義與合作主義. 平民, 第24期.
- 毛澤東. (1966).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 *毛澤東選集(1卷)*. 北京: 人民出版社.
- 薄一波. (1991). *若干重大決策與事件的回顧*.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 何金彝. (1996). 傅立葉 《新世界》與康有爲 《大同書》之比較. *上海師範大學學報*, 第1期, 113-126.
- 李小娜. (2009). 毛澤東的農民合作思想研究. *學習與輔導*, 第1期, 7.
- 李澤厚, 김형중 역. (2005). *中國現代思想史論*. 서울: 한길사.
- _____, 임춘성 역. (2005). *中國近代思想史論*. 서울: 한길사.
- 梁漱溟. (美)艾愷 采訪. (2011). *這個世界會好嗎 梁漱溟晚年口述*. 天津: 天津教育出版社.
- 伍玉璋. (1929). *中國合作運動小史*. 中國合作學社.
- 許文驪. (2000). 康有爲大同說對毛澤東的影響. *電子科技大學學報社科版*, 第2卷第1期, 82-84.
- 徐旭初, & 錢文榮. (2009). *生存故事: 50位農民工訪談記錄*.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 王貴宸. (2006). *中國農村合作經濟史*. 太原: 山西經濟出版社.
- 趙泉民. (2006). 中國近代社會變分期期的經濟烏托邦主義: 薛仙舟的合作經濟思想芻議. *東方論壇*, 第6期, 87-93.
- 張如秀. (2008). 毛澤東合作經濟思想在現實經濟中再現活力. *中國集體經濟*, 第4期, 11-13.
- 張同奇, & 郭靜. (2001). 建國前後劉少奇農業合作經濟思想探析. *聊城師範學院學報*, 第3期, 35-39.
- 周揚明, & 張崇康. (1993). 論毛澤東的合作經濟思想. *三西師大學報*, 第20期, 38-42.
- 朱修國. (2008). 馬克思恩格斯的合作經濟思想與和諧社會思想. *馬克思主義與現實*, 第5期, 132-136.
- 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計劃司. (1989). *中國農村經濟統計大全(1949-1986)*. 北京: 農業出版社.
- 毛澤東選集(第3卷)(1991).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輯. (1993). *劉少奇論新中國經濟建設*.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Holyoake, George. (1906). *The History of Cooperation*. London: T. Fisher Unwin.
- Fourier, Charles. (1966/67), 변기찬 역(2007). *Euveres complètes de Charles Fourier(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외)*. 서울: 책세상]
- Kaple, Deborah. (1994). *Dream of a Red Fact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Oi, Jean C. (1989). *State and Peasant in Contemporary China: The Political Economy of Village Govern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wen, Robert. (1995)(초판 1816), 하승우 역(2008). *A new view of society(사회에 대한 새로운 의견)*.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 Potter, Sulamith Heins, & Potter, Jack M. (1990). *China's peasants: The anthropology of a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y, Ewell. (1969). *Cooperatives: Today and Tomorrow*. Danville: The Interstate and Publishers.
- Shue, Vivienne. (1980). *Peasant China in Transition: the Dynamics of Development Toward Socialism, 1949-195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논문투고일: 2011. 10. 15

1차수정일: 2011. 11. 20

2차수정일: 2011. 12. 3

게재확정일: 2011. 12. 6